

## 2015 STEPI 국제 심포지엄 –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창업생태계’ 주제로 성황리 개최

글/구성: 이정우 (jungwoolee@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송종국)은 개원 28주년을 기념하여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창업생태계 (Global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Ecosystems)’를 주제로 2015년 5월 28일 목요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5 STEPI 국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sup>1)</sup>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STEPI 내에 신설된 기업가정신연구단과, 민간에서 청년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이 날 예비/초기창업자, 업계, 학계, 연구자, 정책입안자, 투자자, 언론, 대학생 등 200여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참석하여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STEPI 이정우 부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는, 첫 순서로 STEPI 송종국 원장의 개회사로 그 막을 열었다. 송종국 원장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원동력으로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과 창업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요즘, 국내외 기업가정신 및 창업생태계 현황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창업 활성화와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및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하는 본 심포지엄의 기획 취지를 밝히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림 1: STEPI 송종국 원장 개회사



그림 2: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 축사



그림 3: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황철주 이사장 축사



1) 자세한 발표 내용 및 자료는 STEPI 국제 심포지엄 공식 홈페이지(<http://sis.stepi.re.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그림 4: 쥬스탱크 Mukesh Patel 대표 발표



그림 5: 칭화대학교 Hengyuan Zhu 교수 발표



그림 6: Erasmus 기업가정신센터 Martin Luxemburg 매니저 발표



이어서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황철주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정화 청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벤처창업대책 추진 및 창조경제 생태계 인프라 구축 노력의 결과, 작년 창업법인 8만개, 벤처 3만개 돌파, 대학생 창업의향도가 30% 넘어서는 확산 단계에 있으며,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창업환경순위 17위에 오르는 등 창조경제혁신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의 창업 열기를 창업 르네상스로 확산하고, Death Valley (죽음의 계곡) 극복을 통한 창업생존율 제고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실패한 기업가를 위한 재도전 생태계 마련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로 축사를 대신했다. 황철주 이사장은 시의적절한 이번 심포지엄의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창업생태계 주제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벤처의 성공은 기업가정신에 달려있으며, 청년실업문제 극복 및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해 기업가정신 확산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부 발표세션의 해외 초청 연사로 미국 뉴저지 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쥬스탱크(JuiceTank)의 무케쉬 파텔(Mukesh Patel) 대표,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이노베이션, 기업가정신 및 전략 학과 부학과장을 맡고 있는 주황원(Hengyuan Zhu) 교수, 유럽 에라스무스(Erasmus)기업가정신센터의 공동설립자이자 'Get-In-The-Ring'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마틴 룩셈부르크(Martin Luxemburg) 매니저가 발표를 맡아, 미국, 중국, 유럽의 기업가정신 현황과 창업생태계 특징을 각각 소개했다.

첫 번째로, Patel 대표는 'Venture Accelerators in U.S'를 주제로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새로운 주자인 엑셀러레이터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쥬스탱크를 포함한 미국의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엔젤, 대학기업가센터 등 미국 내 창업지원 기관의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각 지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우수한 창업생태계 구성을 위한 선행 조건들로 자국의 특성에 맞는 적용, 민관협력, 공유 자원의 개발, 성공한 선배 기업가의 멘토링, 충분한 투자 자원 마련, 실용적인 사업기술 교육 지원, 창업 지원 센터 확대를 언급했다. 그리

고 창업가들을 위한 조언으로 좋은 팀의 구성, 빠른 실행력, 업무 세분화를 통한 반복적 시행과 개선, 고객의 니즈 파악, 사용자경험(UX)의 중요성, 자금의 현명한 사용,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두 번째로, 칭화대학교의 Hengyuan Zhu 교수는 'The ChangKe Boom of the Zhongguancun High-Tech Zone'을 주제로 중국 중관촌 창업거리 창커(創客, 혁신창업자) 열풍을 통한 대학발 기술사업화 및 인큐베이팅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촌 창업거리에 위치한 인큐베이터 커피샵인 '차고(車庫, CheKu) 카페'와 칭화대학교의 창업 인큐베이터 'X랩' 프로그램과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를 함께 소개했다. 현재 X랩에서는 338개의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며,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시제품 제작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창업 열풍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로,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기업가정신센터의 Martin Luxemburg 공동창업자 겸 매니저는 'Reigniting the Entrepreneurial Sprit in Europe'을 주제로 유럽 기업가정신의 재점화 열풍과 창업생태계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1:1 토너먼트 형태의 국제 스타트업 경진대회인 'Get in the

Ring' 개최, 기술혁신 클러스터인 '스타트업 델타' 구축 등 기업가정신의 세계적 확산,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제공, 혁신 지원 등을 위한 활동들을 소개하였다. 앞으로 혁신 허브간 연계 강화, 협업 시스템 구축, 임팩트 있는 쉽고 효과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네트워크, 자본, 재능의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창업 협력에 노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서 국내 연사로 STEPI 기업가정신연구단 김선우 단장, 구글 캠퍼스 서울 임정민 총괄, 벤처기업협회 정준 회장의 최근 국내 기업가정신 현황과 창업생태계 특징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STEPI 기업가정신연구단 김선우 단장은 '최근 한국 창업 생태계의 동향 및 STEPI 기업가정신연구단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창업 대중화 현상에 따른 한국 창업 생태계의 팽창 현황에 이어, 한국 창업생태계의 특성으로서, 모바일 기반의 아이디어 창업이 많고, 글로벌 연계 및 스타트업간 전략적 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 및 입법 지원 강화를 꼽았다. STEPI 기업가정신연구단에서의 기업가정신 국제 비교, 창업환경 진단, Young Innovators 포럼, 엑셀러레이터 법제화 연구 등의 사업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로서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글 캠퍼스 서울의 임정민 총괄은 '세계 창업생태계 속의 한국: 최근의 창업붐과 가능성'을 주제로, 세계 3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구글 캠퍼스 서울에 대한 소개와 함께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그림 7: STEPI 기업가정신연구단 김선우 단장 발표



그림 8: 구글 캠퍼스 서울 임정민 총괄 발표



그림 9: 벤처기업협회 정준 회장 발표



다. 전세계 사람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면서,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여성창업가를 비롯한 다양성과 세계화를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한국 기업가들이 세계로 나가는 것 (Out-Bound) 못지않게,

해외의 창업가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 (In-Bound)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정준 회장은 ‘한국 창업생태계의 과제와 미래방향’을 주제로, 벤처기업협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현재 한국 스타트업의 현황, 한국 창업생태계와 다른 나라 창업생태계의 차이점 및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내 창업생태계의 두가지 아쉬운 점으로, 한국 벤처기업들의 숫자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 드문 점, 글로벌 성공 사례를 찾기 힘든 점을 꼽았다. 더 좋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와 미래방향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전환,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을 제시하였다.

2부 패널토론세션에서는 STEPI 이정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김형영 국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금기현 사무총장, KAIST 경영대학 배종태 교수를 비롯한 각국의 발표자들이 함께 산-학-연-민-관 협력을 통한 창업생태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토론 주제는 크게 2가지로, ‘각국 창업생태계의 특징 비교 및 한국형 창업생태계 구축방안’과 ‘창업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향후 발전 및 상호협력 연계방안’으로 진행되었다.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김형영 국장은 정부 관점에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그림 10: STEPI 이정원 부원장 패넬토론 좌장 진행



그림 11: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김형영 국장 토론



그림 12: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금기현 사무총장 토론



그림 13: KAIST 경영대학 배종태 교수 토론



5가지로 요약 제시했다. 첫 번째는 민간 주도의 창업 지원 활성화, 두 번째는 창업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세 번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재도전 정책, 네 번째로 M&A 위주의 회수시장 개편, 마지막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 및 시장 진출을 들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금기현 사무총장은 민간 재단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대학생 대상 예비창업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만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정부의 지원 자금, 제도 등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 민간기관, 기업이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AIST 경영대학 배종태 교수는 학계 관점에서 각국의 전반적인 창업생태계 특징 비교와 함께, 한국형 창업생태계 구축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폭넓게 제시하였다. 특히 사람이 제일 중요한 만큼, 인력 차원에서 우수한 젊은 창업 인력 양성을 위한 성공한 기업가들의 멘토링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국제 시장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국내 스타트업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현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으로까지 확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Patel 대표는 민간의 입장에서 한국 진출 계획과 우수한 한국 인력의 채용에 대한 의향을 밝혔고, Zhu 교수도 대학 차원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산업계와의 연계, 대외 활동과 언론 홍보를 통한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창업생태계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Luxemburg 매니저는

그림 14: 주요 참가자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장 원리에 따른 In-Bound와 Out-Bound의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각 국가의 고민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 회장은 예전 한국의 2000년대 초 벤처 버블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창업 쪽으로의 대규모 인력 이동이 있었던 거의 유일한 시기였다는 점을 함께 교훈으로 삼아, 제2의 벤처붐 또는 벤처 르네상스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의 창업이 더 많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정민 총괄은 구글 캠퍼스 서울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정원 부원장은 STEPI에서도 관련 연구를 지속해나가면서, 앞으로 각국의 활발한 상호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가 정신 및 창업생태계가 더욱 발전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토론을 마무리 하였다.

공식행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의원회의실 로비에서 네트워킹 디너를 통해, 못다 나눈 질의응답과 토론이 활발히 이어졌다. 이번 '2015 STEPI 국제 심포지엄'에서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 공유와 참가자간 활발한 토론이, 향후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더욱 발전시켜가는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